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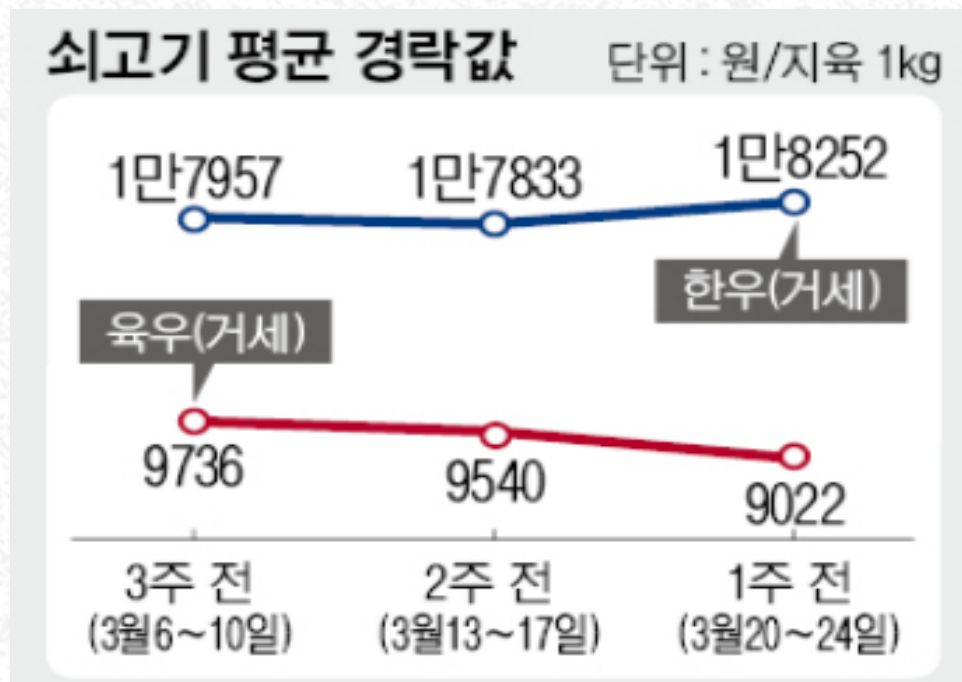
2023년 3월

한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3월 5주차 HOT ISSUE

- 농축수산 온실가스 27.1% 저감
- 인체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약품 생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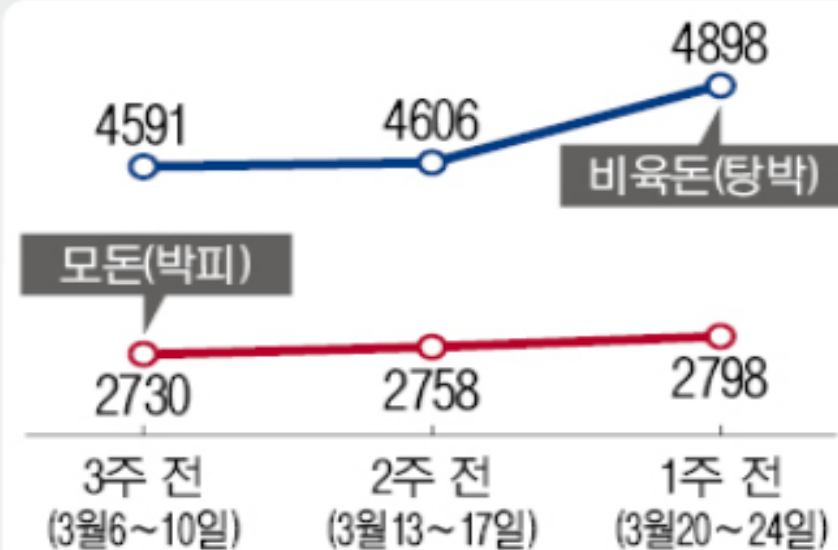
축산물 출하정보<소> (3월20일~3월24일) 온라인세일 덕 값 약간 올라

지난주 한우값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한우자조금과 연계한 봄 맞이 한우 세일 온라인 한우장터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효과가 덜했으나 경락값을 상승세로 이끌었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1만2406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1만8252원으로 전주 대비 419원 상승했다. 1++A등급은 46원 하락한 2만1958원, 1++B등급은 91원 오른 2만332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940마리가 거래됐으며 1kg당 평균 경락값은 518원 하락한 9022원이었다.

W:SWINE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 단위: 원/지육 1kg



축산물 출하정보<돼지> (3월20일~3월24일)

급식수요 늘어
가격상승 지속

지난주 돼지값은 전주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급식 수요가 늘어나고 캠핑 등 나들이 수요가 늘어 값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면 삼겹살과 목살 등 부위를 중심으로 야외 나들이 소비가 증가하기에 4월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 제외)에서 8421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kg당 평균 경락값은 4898원으로 전주 대비 292원 상승했다. 모돈(박피) 1kg당 평균가격은 40원 상승한 2798원이었다.

양돈 설 땅이 없다... 5천호 붕괴 '초읽기' '농축산부,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시 밀폐형 무창형 돈 사만 허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신규 양돈장의 경우 사육 시설은 자연 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밀폐로 설치해야 한다.

3년간 매년 평균 84농가가 신규 진입한데 비해 폐업한 농가는 평균 165호로 추산되면서 폐업 농가 수가 매년 신규 농가 수보다 2배 많았다.

이에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신규 농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생산비 증가 및 질병 발생 등 각종 이유로 폐업 농가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속도라면 5년 내 농가 수 5천호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냄새 잘 관리하면 돈사 증축 허용 제주, 농가 4단계로 구 분 관리 개선 거부 · 불성실 시 폐업 유도



제주도는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고 ‘2023년 양돈 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먼저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악취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키로 했다.

양돈농가를 구분해 악취 관리 최하위 농가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농가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최상위 농가에는 악취관리 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닭고기 공급 감소 예상... 사료가격 상승에 생산성 하락 영향



다음달부터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 다음달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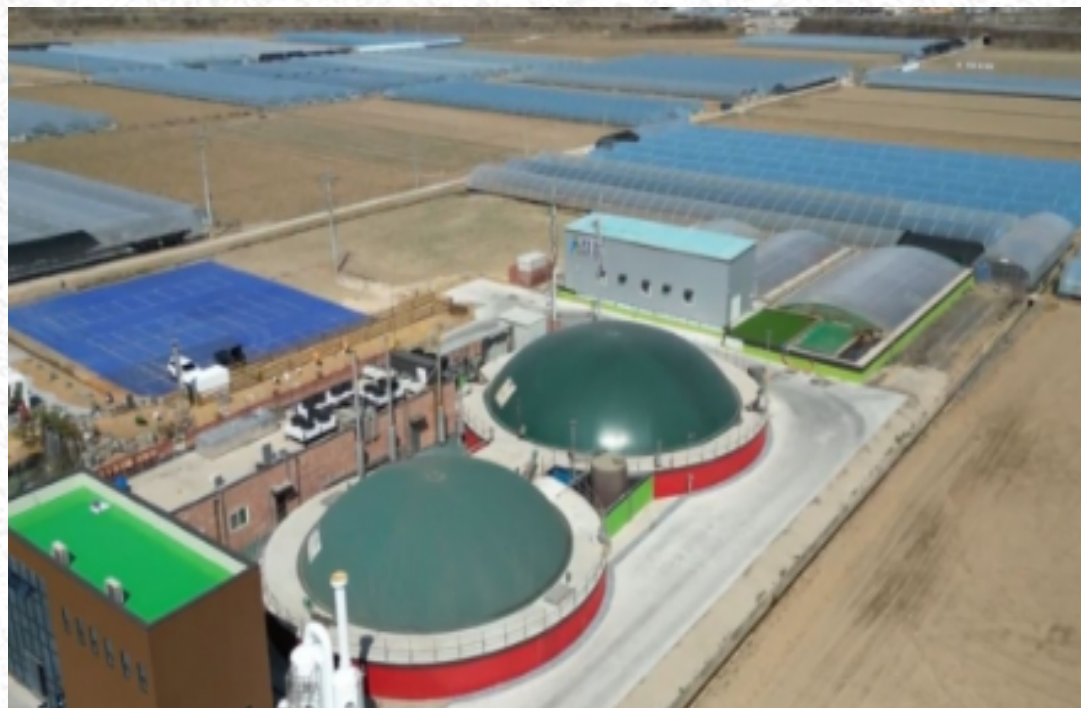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종계 산란율도 지난해 대비 2.5% 하락하면서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육계 도축 마릿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육계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4.3% 내외 감소한 6041~6169만 마리로 예상되며 오는 5월 도축 마릿수도 지난해 대비 3.7% 내외 감소한 6497~6634만 마리로 전망된다.

농축수산 온실가스 27.1% 저감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연도별 목표 · 수단
등 이행 방안 담아
축산, 저메탄 · 저단
백 사료, 축분 활용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업 구조 전환, 재배 ·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그리고 에너지 이용 ·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과제다.

축산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저메탄사료 및 저단백 사료 개발 보급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인체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약품 생산 허용 규제심판부, '제약 규제개선 통한 경쟁력 제고' 권고



규제심판부는 지난 3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제한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순환농업협회, 탄소중립 시대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 촉구



협회는 지난 29일 경북 고령에 위치한 해지음 회의실에서 열린 ‘제 3차 정기이사회에서 ‘액비살포비 등 가축분뇨자원화 정부예산 삭감 대응 성명서 발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지원 정책을 정상화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규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에 이어 케이에스에프(주)의 라디칼 이온수 약취저감 시스템, (주)우성양행의 슬러지제거와 질소고정 아미노폴리머 등에 대한 설명회도 열렸다.